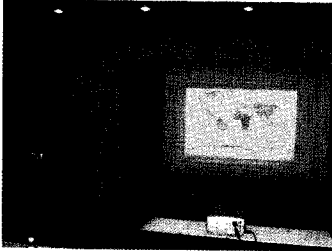


북한 수문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를

-진정한 ICID 데빌리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때



박 상 현

(pshpark@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

ICID 연안발전분과위원장

지난 9월 10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ICID 19차 총회 및 56차 집행위원회(19th International Congress and 56th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에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에서는 안중운 회장님을 비롯하여 15여명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회의와 지속가능한 연안발전분과위원회 등에서 눈부신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식량의 안전적 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한 물과 토지의 이용 (Use of Water and Land for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선진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조화로운 물과 토지 이용,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 홍수 재해관리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아시아 지역회의

아시아지역회의는 (Asian Regional Working Group) KCID의 정병호 부회장(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이 11월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INWEPF 국제회의에 아시아 지역대표들의 많은 참석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논과 농업용수의 공익성과 종다양적 기능 (multiple/diversified role)에 대한 Work Team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KCID는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 몬순기후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국제 사회에 전파하여 향후 WTO 등 농업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다니아마 박사(일본관개배수위원회 명예회장)은 2006년부터 다른 분이 회장을 맡아주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는 아시아지역회의를 KCID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그간 KCID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다.

지속가능한 연안발전 워크숍 개최

지속가능한 연안발전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s: WG-SDTA)는 KCID가 2000년 케이프 타운 회의에서 설립토록 제안하여 2002년 몬트리얼 총회에서 승인되어 활발한 분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KCID의 지원을 받아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금번 제4차 워크숍의 주제는 “지속적인 간석지 발전 핸드북 초안 평가(Evaluation of Draft ICID Handbook on SDTA)”로 분과위원들은 각자가 맡은 핸드북의 Chapter별 편집 결과와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중국, 화란 등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이덕배 박사 등이 원고를 발표하였다. KCID는 올해도 워크숍의 논문집(Proceedings)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주었다.

특별강연은 일본의 다니야마 박사와 화란의 Bart Schultz 박사가 참석하였다. 다니야마 박사는 간척지 논과 농업용수의 다기능에 대한 강연에서 일본 니가타 간척지 논의 지속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희귀종의 물고기와 식물이 증가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Schultz 박사는 저지대 간척지 개발에 대한 강연에서 인도네시아는 약 8천만ha의 간척에 적합한 토지가 있으며, 앞으로의 개발은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개수로 형의 배수(Open drainage)와 일모작 영농, 2단계는 관거 병행의 배수관리(semi closed drainage system)와 이모작 영농, 그리고 3단계는 완전히 조절되는 물관리(fully controlled water management)을 통한 다양하고 상업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형태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지대 수리시설의 관리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워크숍에서는 북한 이현근(북한 기상수문국) 연구원에게도 특별히 발표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서해갑문의 최적화 홍수관리에 대한 발표에서 물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2003년 8월에 발생한 홍수 때 3,000ha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였다고 하였다.

개막식

9월 15일 아침, 국제회의센터의 넓은 대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안종운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안 회장은 새만금사업의 소송을 지원한 바 있는 화란의 Bart Schultz 박사와 일본의 다니야마 박사 등과 만나서 그동안 KCID의 활동을 지원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개회식에는 ICID 베이징 총회 대회장 중국 부총리인 Mr. Hui Liangyu과 수리부 장관인 Mr. Wang, Schucheng 등이 참석하여 개회식과 축사를 해주었다.

총회 세션

총회 세션에는 이번 대회 의제에 대하여 총괄자 보고(general reporter)가 있었다.

첫번째 의제(Question 52)인 관개농업에서 물과 토지관리 개선의 효율성 증대(Improving Water and Land Management for Increasing Efficiency in Irrigated Agriculture)에 대하여 중국의 Cai Lingen 교수가 발표하였다. 그는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관개면적은 27천만ha에 이르렀지만, 이는 17%에 불과하며, 관개를 통한 생산량은 4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에 이르고 농산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농지를 과다하게 이용함으로써 농지가 피폐해질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두번째 의제(Question 53)인 홍수와의 조화로운 공존(Harmonious Coexistence with Flood Water)에 대하여 Bart Schultz 박사가 발표하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홍수 위험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농업 뿐 만 아니라 주거와 산업 단지로 더욱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재해 중 아시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연 평균 100억 달러로서 유럽의 다섯 배, 아프리카의 100배나 되며, 이러한 피해는 개발도상국 뿐 만 아니라 미국 뉴올리언스와 같은 선진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수



환송만찬장에서 남북한 대표와 일본대표

면의 상승, 하천의 최대홍수량과 강우량의 증가에 대한 설계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집행위원회(IEC)

IEC는 ICID의 연간 활동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해의 활동 및 예산 집행계획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또한, 각 회원국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활동적인 국가와 비활동적인 국가로 구분하여 회비를 못내거나 활동이 매우 미흡한 국가는 회원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본 대회를 통하여 북한은 캄보디아 등과 함께 새로운 초청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본 회의의 백미는 새로 회장단을 선출하는 행사였다. 회장은 그동안 ICID의 재정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영국의 Peter Lee가 당선되었으며, 부회장은 이번 개최국의 이점을 안고 중국의 젊은 후보자인 Gao Zhanyi 와 2000년도 케이프타운 대회를 멋지게 개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r. Felix Reinders 및 2007년 Sacramento 대회를 준비하는 미국의 Mr. Mark Svendsen이 당선되었다.

종합토론

이번 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종합토론이 추석 날인 9월 18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떠났지만, 한국에서는 정병호 대표, 허유만 부회장 등 다섯 명이 남아서 마무리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전에는 이번 대회의 두 개의제에 대한 종합 결론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새로 선출된 Peter Lee 회장의 취임기념 강연 등이 있었다.

모든 회의를 마치고 환송 만찬이 대회의장에서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중국 무용단의 춤과 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그동안 우리 대표단을 따듯하게 맞아주었던, 중국의 Cai Lingen, 화란의 Bart Schultz 박사 등과 아쉬운 정을 나누며 사진도 함께 찍었다.

일본의 다니야마 박사와 북한 대표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일본에서 여러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었다. 아마 북한의 참석이 일본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인 듯하였다.

만찬을 마친 후, 우리는 북한 대표들과 함께 호텔 앞 넓은 잔디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는 술과 과일 그리고 송편대신에 중국 떡인 월병을 준비하였다. 북한 대표들도 언제 준비하였는지 술을 내놓으며 그동안 우리 대표단이 ICID 현황자료와 사진 등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친절히 대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하였다.

우리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옥류정에 가서 다시 한번 회포를 풀자고 제의하였으나, 접대만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사양하였다. 옥류정에는 그 전날 미리 가본 곳으로서 황진희 만큼이나 아름다운 안내양이 색동옷을 입고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끝난 후에는 문앞까지 나와서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무튼, 북한 동포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아쉬움을 안고 마무리하여야 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아시아지역회의, 지속가능한 연안발전분과위원회를 통하여 KCID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관개배수 분야의 국제적인 참여와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대표들에게 논문 발표의 기회를 주고, 각종 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안내하여, 북한 대표에게는 ICID 가입의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회원국들에게도 우리의 동포애를 통한 진정한 ICID Family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앞으로 좀더 많은 젊은 회원들이 여러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본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KCID가 ICID에서 굳건한 위상을 지속하며 효율적인 관개배수 및 농업 환경에 대한 선진 기술 교류를 계속하게 되길 바란다.